

엇갈린 관계, 전쟁 참상, 생태학적 문제 등 다양

2024 광주일보 신춘문에 심사

시·소설·동화 등 총 1932편
현실에 기반을 둔 작품 많아
당선작 2024년 신년호 발표

문학은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아무리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 문학의 정의 가운데 하나다. 사람들과의 관계, 삶과 죽음에 대한 사유, 직장 내의 갈등, 노동 문제 등은 여전히 창작자의 화두가 된다는 의미다.

올해 신춘문에 심사에서도 그러한 경향성을 드러내는 작품들이 적지 않았다. 현실에 기반을 두면서 그것의 의미를 묻는 작품들이 많았다는 것은 오늘날의 시대가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2024 광주일보 신춘문에 심사가 끝났다. 이번 심사는 14일 본사 편집국 9층에서 진행됐으며 정이현 소설가, 손택수 시인, 배다인 동화작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올해는 시 1613편, 소설 172편, 동화 147편 등 1932편이 투고됐다. 작품 투고는 예전과 비슷한 현황을 보였으며, 작품들에서 문정들의 신춘문에 대한 열망을 읽을 수 있었다.

심사위원들에 따르면 예년과 달리 상대적으로 SF적인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거나 외국을 배경으로 한 작품은 많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올해에도 응모자들은 광주 전남 외에도 전국 각지에 분포할 만큼 다양했다.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 영남, 충청, 제주 등에서 투고를 한 이들과 외국에서 작품을 보내온 응모자도 있었다.

응모작 가운데는 한시 창작 작품도 있었고, 소설 부문은 단편 응모가 대량인데도 중편을 보내온 투고자도 눈에 띄었다. 또한 한명이 여러 작품을 투고한 경우도 있었는데, 신춘문에 대한 열망을 읽을 수 있는 대목으로 다가왔다.

소설은 현실과 밀착한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었



2024 광주일보 신춘문에 심사가 14일 본사 편집국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배다인 동화작가, 손택수 시인, 정이현 소설가.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다. 삶을 다룬 서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견 이해되지만 활달한 상상력과 새로운 도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다.

정이현 소설가는 "노동의 현장에서 일어난 이야기, 가족 관계의 문제 등 현실에 토대를 둔 작품들이 많았고 '연대'의 의미를 묻고 새로운 의미를 제시하고자 하는 작품들도 눈에 띄었다"며 "죽음 앞에 직면한 인물들을 내세워 삶과 죽음의 본질을 성찰해보려는 작품들도 보였다"고 평했다.

그럼에도 "서사가 개인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서사는 어느 정도 새로운지 그 전개 과정이 읽는 이를 설득할 만한 플롯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우선적으로 살폈다"며 "신인이나 실험성과 상상력을 갖춘 작품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는 상당한 수준의 작품이 많았다는 게 심사위원들의 견해다. 다양한 소재와 일상적 사물을 매개로 한 내면의 사유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들도 많았다.

본심을 맡은 손택수 시인은 "예시를 통과해 올라온 작품들은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참상부터 기후변화 시대의 생태학적 목소리에 이르기까지 근래에 보기 드문 시적 원시력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며 "주제나 개념의 중력을 이겨내고 미적 부력의 경쾌하고도 내밀한 감각을 제시한 작품들도 눈에 띄었다"고 평했다.

이서영 시인은 "새로운 발상과 시를 끝까지 밀고 가는 힘이 좋은 작품들이 많았다"며 "한편으로 시적 발견의 지점은 참신하지만 고유한 사유를 드러내 보이는 문장들을 찾기 어려운 점도 있었다"고 평했다.

동화 부문은 예년과 달리 특정한 분야에 소재가 편중되지 않았다. 그러나 신체적 외모 등이 놀림 대상이 되거나 어른 세계 갈등이 중심축을 이루는 서사는 참신성 면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배다인 동화작가는 "사물과 곤충, 무생물의 시점에서 사건이 전개되는 경향이 많았는데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지 못해 아쉬운 면이 있었다"며 "전반적으로 작품 수준이 고른 편이었고 친구 사이의 갈등이 주를 이루는 현실동화 응모작도 많았다"고 말했다.

한편 각 부문 당선작은 2024년 광주일보 신년호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무제8'

'비움 달 향아리, 보석꽃 피어나다'

고재희 개인전, 17일까지 예술의거리 이화갤러리

달 향아리에서 보석꽃이 피었다. 깊고 그윽하다. 시골 토담집 향아리에서 핀 수수한 꽃들과는 다른 느낌을 받는다. 달 향아리에서 핀 꽃은 꽃대로, 시골 향아리에서 핀 꽃은 그것대로 저마다 향기를 발한다.

예술의거리 이화갤러리에서 열리는 도예가 고재희 개인전 '비움 달 향아리, 보석꽃 피어나다'.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비움 달 향아리의 은은한 멋과 고아한 정취를 느낄 수 있다. 크고 작은 달 향아리가 발하는 것은 어찌면 빈 마음, 무욕일 것이다.

이와 달리 달 향아리에서 피어난 보석꽃은 세련된 우아미를 전한다. 마치 여백에 점 하나 찍은 것 같다. 하얀 색 바탕에 푸른빛은 서늘하면서도 은은한 대조를 이룬다.

달 향아리가 주는 본질적인 이미지와 의미는 빠른 속도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잠시 '쉽'과 '숨'을 환기한다. 저마다 달려온 삶의 자리에서

잠시 물러나 지나온 시간과 앞으로 가야 할 시간을 가능하게 한다. 그 비워낸 자리에서 피워낸 보석꽃은 위로와 결실로 다가온다.

물론 모든 비움 달 향아리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조금 찌그러진 것도 흠이 있는 것도 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러하듯, 향아리는 저마다 그 자체 생명의 이름으로 존재한다.

고재희 도예가는 "공허한 공간에 채워진 달 향아리는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며 "아픔을 담아 향아리의 형태를 잃고 조각들이 된 파편들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며 희망이라는 메시지로 태어난다"고 말했다.

고 작가는 전남대 미술대학을 졸업했으며 아트:광주 19 'volume up!' 신진유망예술가지원전을 비롯해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다. 2019 도자제 이블에이전 특선(한국도자재단)을 수상했으며 현재 전예공예가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공연 수익금 기부...사랑나눔 송년음악회 'Oh! Happy day'

베누스토 광주·전남지부
17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연말연시를 맞아 공연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는 송년음악회가 열린다.

베누스토 광주·전남지부(회장 오하정)는 2023 광주 베누스토 사랑나눔 송년음악회 'Oh! Happy day'를 오는 17일 오후 4시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에서 선보인다.

경희대 음대 기억과를 졸업한 강재진 상임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광주 베누스토 오케스트라와 광주 기베스 오케스트라(회장 편수진)가 출연할 예정이다.

차이코프스키가 작곡한 오페라 예베키나 오네긴 중 '플로네이즈'가 막을 올린다. 라리의 '그리나다'는 소프라노 차유경이 들려준다.

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는 테너 조유환의 협연으로, '타임 투 세이 굿바이'는 차유경과 테너 조유환이 협연한다.

이어 김태은 반도네오니스트는 피아졸라의 '리베레 랭고'를 연주할 예정이다. 김태은은 제



광주베누스토오케스트라 제15회 정기연주회 공연 장면. <광주베누스토오케스트라 제공>

20회 남도예술제 최우수상, 2021전국청소년 예술제 대상 등을 수상한 반도네온 연주자.

이외에도 김웅 대금연주자가 '아름다운 나라'로 관객들을 만난다. 쇼스타코비치 재즈 모음곡 중 '왈츠 2번'과 웨버의 '뮤지컬 모음곡'도 레퍼토리에 있다.

영화 스타워즈 ost 중 '제국의 행진', 앤더슨의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등 익숙한 곡들도 마

련된다. 강재진 상임지휘자는 "오케스트라와 성악 협연, 반도네온, 대금 등 풍부한 사운드를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을 준비했다"며 "특히 이번 공연의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니, 공연을 즐기시며 많은 관객들께서 선의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료 공연. /최류빈 기자 rubi@

'진소리' 마지막 무대 춘향가로 장식한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15일 서석당

한 해에 걸쳐 우리 전통의 소리를 긴 호흡으로 들려준 공연 '진소리'가 마지막 무대를 연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 전통공연 '진:소리'를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석당에서 펼친다. 공연은 광주시 무형문화재 동초제 판소리 전승교육사인 박미정이 출연, 판소리 다섯바탕 중 '춘향가'를 들려준다는 계획이다.

변사또가 남원에 부임한지 3일만에 기생을 점고(고르는)하던 중 춘향을 발견하고, 수정 받기를 요청하는 '기생 점고 대목'부터 몽룡이 남원으로 금의환향하며 부르는 '농부가 대목'까지 들을 수 있다.

박미정 전승교육사는 16세에 김항순으로부터 동초제 흥보가를 사사받고 성창순의 강산제 심청가, 방성춘의 동초제 춘향가 등을 전수받았다. 제12회 보성소리축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전남도립극단 상임단원, 한국국악협회 화순지부장 등을 맡고 있다. 고수는 양신승(광주시 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전통문화관 관계자는 "동초제 판소리는 가사의 극적 짜임새와 개연성을 중시하고 시김새의 변화가 다양해 몰입력을 높이는 작품이다"며 "극악 에



박미정 전승교육사. <광주문화재단 제공>

호가들에게 사랑받아온 이번 진소리 공연의 마지막 무대를 맞아, 춘향가의 애절함이 폭 빠졌다가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전 접수 전통문화관.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